

#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검증 돌입... 시도민 이목 집중

### 광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4명 면접...오늘은 전남 후보군 4명 심사 다음달 초 예비경선·4월 20일까지 공천 마무리...경선 룰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초대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로 합쳐진 뒤 처음 치러질 예정이어서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와 경선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주지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는 1분 자기소개와 함께 정책 비전 및 현안 대응 능력에 대한 '송곳 질문'을 받았다.

강 시장은 면접에서 현역 단체장으로서의 추진력과 정책 성과를 질문에 내세웠다.

그는 1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이제 통합을 통해 부강한 도시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쌓여있던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온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면접관들은 통합 시장의 자질과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 시장은 통합 시장의 조건으로 "수많은 갈등과 현안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통합론자'로서의 정체성과 행정·정치권의 폭넓은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대전환기"라며 비전 수립 역량, 사회 조정 능력, 복합 행정 능력, 중앙정부와의 호흡 등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춘 책임자임을 자임했다.

민 의원은 본인의 대표 공약인 '시민의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회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시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의사결정 창구로서 통합 이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기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젊은 리더십"과 "경선 혁신"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호남은 경선이 곧 본선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천 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경선 시기 연기, 순회 토론회 도입, 현장 연설 및 직접 투표 방식 검토 등 네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경선 룰을 공관위에 전달했다.

청년 세대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수용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과 배당 소득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 호남발전특위 부위원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실무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

그는 과거 세종시 건설 초기 멤버로서의 경험과 광양군·동광양시 통합 기여,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 유치 성과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준비된 통합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산업 전력이 곧 최고의 청년 정책"이라며 반도체 기업 유치, 방위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산업 전력이 곧 최고의 청년 정책"이라며 반도체 기업 유치, 방위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도 광주·전남의 상징성을 고려해 흥행과 공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선 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4일 전남지역 후보군인 김영록 전남지사과 이개호·주철현·신정호 의원에 대한 면접을 이어간다. 당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초순 예비경선을 거쳐 4월 20일 이전까지 최종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이수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은 "철저한 시스템 공천 기조 아래 당헌·당규에 따라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도덕성과 자질, 지역 발전 비전을 두루 갖춘 최선의 후보를 엄격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주, 김남국 전 의원 당 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6월부터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 인선 배경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누가 대변인으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당 대표도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변인 제안을 수락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취소 촉구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李 조작기소 국조 추진" 민주 '공취모' 출범

### 공식 활동 시작... "검찰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소취소 모임)이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

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하며 "톨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선 출마 포기·최고위 사퇴...서삼석 '선당후사' 눈길

### 민주 지도부 비대위 체제 전환 우려에 출마 포기... 혁신 위해 당 권력 내려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진) 국회의원이 지도부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권의 성공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전남 발전과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전략지역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최고위원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후임으로 박규환 대변인(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을 신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서 의원은 회생을 통해 '선당후사' (先黨後私)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접고 당을 지킨 데 이어 이번에는 '당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무더기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당직 출사퇴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우려됐으나, 서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접으면서 사태가 수습됐다.

서 의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회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원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청대 당대표 선출 이후 추진 중인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당원주권 정당으로의 도약' 과제 역시 분명한 방향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의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며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